

식민지시기 번역과 서양사상의 소개 - 유물사관의 번역을 중심으로

류시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원 HK연구교수)

<목차>

1. 머리말
2. 「유물사관요령기」의 번역과 매체
3. 1924년 갑자년과 「유물사관요령기」의 번역
4. 민족운동 분화와 ‘유물사관’에 관한 이해
5. 맺음말

1. 머리말

동북아시아에서 서양 사상의 번역은 민족주의와 근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일반적으로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① 시찰단의 파견 ② 유학 ③ 번역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동아시아 근대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번역의 역할에 주목한 리디아 리우(Lydia Liu)는 이를 ‘번역된 근대(translated modern)’라고 규정했다. 한국의 경우에도 ‘번역’은 서구 사상 소개와 수용의 중요한 통로 가운데 하나였다. 번역은 외국어를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은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며, 서구 사상의 번역물은 이러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근대적 지식’이 보다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번역물의 소개·수용과 관련해서, 문학 관련 번역물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토대로,¹⁾ 重譯에 관한 연구는 서양 原典과 일본어 번역본 그리고 중역된 조선어 번역물의 비교 검토되었다.²⁾ 하지만 식민지 시기 번역물 혹은 중역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번역이 아닌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 중역이 지닌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말 일제시기 우리는 서양 서적을 직접 번역하기 보다는 일본어 번역본을 재차 ‘重譯’하는 방식으로 ‘중역된 근대(re-translated modern)’를 경험했다. ‘중역된 근대’는 어떤 특징을 지니는 것일까? 번역물이 원전과 等價일 수 없으며, 重譯은 원전이 되는 텍스트로부터 더욱 벗어나게 된다. 반면 중역의 ‘편리함’ 역시 존재한다. 동일한 한자문화권에 속한 중국·일본의 번역본을 중역하는 것은 ① 새로운 造語를 만들지 않아도 되며, ② 일본에 의해 여과된 혹은 ‘검증된’ 서구사상을 수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번역과 중역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번역 연구는 서구의 원전 가운데 무엇을 ‘선택’했고, 이를 어떻게 소개했으며(완역, 초역, 번안 등), 일본어 번역과 조선어 중역 사이의 차이를 규명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서양사상의 수용과 관련해서 번역물임을 밝히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며, 여러 종류의 일본어 번역물을 침삭해서 번역하기도 했다. 또한 서양 원전을 번역했는지 아니면 일본어를 중역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리고 번역·중역의 경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결론은 일본 사상사의 ‘모방’ 혹은 ‘종속됨’

1) 김병철, 『한국근대번역문학사 연구』, 을유문화사, 1975 참조.

2) 번역과 중역에 관련된 연구는 문학과 역사학(사상사)의 영역에서 상당히 많은 연구가 축적되고 있다. 2000년 이후 연구가 축적된 주된 비교 텍스트는 사회주의 관련 번역물, 스마일즈(S. Smiles)의 『자조론』, 러셀의 『사회개조의 원리』, 위고의 『레미제라블』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을 재확인하는 것에 그칠 수 있다. 사상사의 영역에서 무엇을 어떤 의도로 번역(혹은 중역) 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사회의 내적 요구를 규명하고자 함에 있다.

동양 사회는 서구의 과학 및 정치·경제적 사상을 ‘번역’의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근대’를 만들어가고자 했다. 따라서 한국·중국·일본 모두 다양한 서양의 사상이 짧은 시기에 압축적으로 번역 소개한 것이 특징이다. 조선의 경우 번역보다 중역이란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초기에는 중국과 일본의 서양서적 번역물을 소개하다가 점차 식민지시기 압도적으로 일본어 번역본을 중역해서 소개했다. 한편 일반적으로 여러 번 번역되는 글과 서적은 당대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했는데, 1910~20년대 스마일즈의 『자조론』, 러셀의 저작물, 맑스-레닌의 저서 등이 그러했다. 본고에서는 여러 번 번역된 글 가운데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을 위하여』 서문인 「유물사관요령기(이하 요령기)」를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박종린은 「요령기」의 일본어 번역물과 조선어 중역물에 관한 비교 검토를 통해 유물사관요령기의 번역과정에 관해 치밀하게 검토하고 있다.³⁾ 그런데 민족운동과 사상사를 연동하는 이 연구는 공산주의 그룹이란 실천단위에서의 「요령기」의 소개에 주목하고 있다면, 본고에서는 문화사의 관점에서 ‘중역’이 지닌 의미를 추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당대 언론 매체에 소개된 방식 및 번역물을 선택하고, 번역의 방식을 결정하는 번역가는 당대 독자층의 지식적 요구에 주목하고자 한다. 「요령기」의 번역과 관련해서 우선 어떠한 매체에 어떠한 방식으로 이를 소개하고 있는지 둘째, 민족운동과 「요령기」의 중역과의 관계 셋째, 유물사관에 대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이해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2. 「유물사관요령기」의 번역과 매체

번역은 근대적 서구 사조와 사상을 수용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무엇을 번역할 것인가 여부에 관한 ‘선택’은 번역자와 번역물을 게재한 매체의 입장을 반영한다. 우선 고려될 수 있는 영역으로, ‘번역물’은 체계적인 학문체계가 부족한 분야의 지식을 채워줄 수 있으며, 근대적 지식을 통해 전통적인 요소를 ‘부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예를 들면 『개벽』 편집부는 1924년 3월 간행된 『개벽』 45호는 세계 종교에 관한 종합적인 기사를 특집으로 기획했으며, 이들의 의도를 반영한 번역물이 게재되었다. 특집기사 가운데 불교를 소개한 양건식은 “최초 개벽군이 나에게 「불교의 사상 급 그 운용」이란 題로 비판을 써달라는 것을 나따위로는 그러한 것은 쓰지를 못하겠으므로 이글(P.lakshmi의 저인 Essence of Buddhism)을 抄하여 그 책임을 면하려 한다.”라고 밝혔다.⁴⁾ 아울러 같은 호에서 김기전은 중국학자인 吳虞의 「상하·존비·귀천」를 번역 소개했는데, 그는 “유교사상의 출원처되는 중국학자의 견해도 同然하니, 이제 중국 사상계의 거성인 오우씨의 유교사상에 대한 비판을 적기”했다고 밝혔으며, 이글에서는 유교가 “인간의 개성을 부인”하는 것이며, “근래의 자유주의의 견지로 보아 어디까지 용인치 못할 것”으로 평가했다.⁵⁾ 이렇듯 번역가인 ‘신지식층’은 번역물을 통해 첫째, ‘전통’을 비판하기 위해 둘째, 전문 연구자가 부족한 특집 및 기획을 구성하고자 했다.

번역은 근대적 지식의 소개와 함께 일체의 정책을 비판하는 방안으로 활용되었다. 식민지

3) 박종린, 「1920년대 초 공산주의 그룹의 맑스주의 수용과 ‘유물사관요령기」, 『역사와현실』 67, 2008 참조.

4) 양건식역, 『개벽』 45, 1924.3, 29쪽.

5) 起瀾(김기전)抄, 「상하·존비·귀천」, 『개벽』 45, 1924.3, 14~20쪽.

시기 검열은 언론매체를 통제하는 중요한 식민지 권력이었다. 당시 조선인 언론매체는 외신이나 사설, 특집기사의 형식으로 외국 특히 식민지·반식민지의 민족해방운동 소식을 전하면서 민족운동의 반면교사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식민지 조선과 유사한 경험을 지닌 인도, 필리핀, 아일랜드와 같은 ‘약소민족/국가’의 사례가 자주 소개되었다. 아울러 외국 언론매체의 기사를 번역 소개하는 방식은 검열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활동이었다. 예를 들면 『동아일보』는 1924년 1월 레닌의 죽음을 계기로 레닌의 생애를 소개했고, 아울러 러시아 공산당 기관지가 식민지 조선사회에 관해 평가한 글을 번역 소개했다. 조선인 필자의 목소리보다 외국이 바라본 조선의 현실은 보다 민감하고 예민한 정치문제를 서술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단어 사용 및 문장에서도 조선인의 글쓰기에서 가능하지 않은 표현이 검열을 통과했다.

吾人は日本の 제국주의적 질곡에 신음하면서 자기의 자유를 위하여 부단히 싸우는 조선 사람의 현재 상태를 비교적 等閑에 부렸다. 일본의 정치는 벌써 전조선의 모든 것을 완전히 정복하여 자기의 영원한 식민지로 化하고 말았다. 일본의 조선 사람에게 대한 민족적 迫窮은 최고점에 달하였으며, 일본 관헌은 조선 사람의 조선적 사상을 소멸하기 위하여 가장 노력 중이다. … 그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수단으로 조선 사람의 경제적 세력까지 정복되고 말았다.⁶⁾ (강조는 인용자)

한편 번역물은 번역자의 사상과 주의를 대변한다. 3·1운동 이후 사회주의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언론매체를 통해 소개했다.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1859)의 「서문」이 그 한 예이다.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1859)는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의 중요 저작 가운데 하나이다. 맑스는 이 책을 통해 상품, 화폐, 가치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고, 자본주의에 관한 과학적 분석을 시도했다. 특히 이 책의 「서문」은 유물론적 역사 인식을 간결하게 서술했는데, 생산력과 생산관계 및 상부구조로 구성된 부르주아 경제체제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에 통한 ‘혁명’의 전망 및 사회주의의 도래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 글은 사회주의에 관한 짧고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에 전세계적으로 널리 번역되어 소개되었다. 박종린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에서도 일본에서도 1910년대부터 1920년대 초반 사카이 도시히코(堺利彦)와 가와카미 하지메(河上肇)에 의해 영역본과 독일 원본을 통해 8차례 일본어로 번역 소개되었다.⁷⁾ 「서문」 가운데 핵심 내용을 담은 6개의 단락은 「唯物史觀要領記」라는 제목으로 식민지 조선사회에 여러 차례 다양한 형식으로 소개되었다.

<표 1> 1920년대 전반기 「唯物史觀要領記」의 번역 상황

번역자	제목	출전	원전
윤자영	유물사관요령기	『아성』 1, 1921.3	堺利彦, 「유물사관개요」, 『사회주의연구』 1,

6) 「露國 공산당의 본 조선」, 『동아일보』, 1924.3.11. 이 글은 말미에 계속됨을 밝히고 있지만, 이후 발행된 『동아일보』에서는 후속 기사를 확인할 수 없다.

7) 박종린, 앞의 글, 87~90쪽. 박종린에 따르면 조선에 번역된 일어본은 사카이 도시히코의 판본이며, 조선인 번역가는 일본공산주의운동의 실천 활동에 참가하고 있던 사카이의 글에 권위를 부여했다고 보았다(박종린, 앞의 글, 94~95쪽).

			1919.4
신백우	유물사관개요	『공제』 7, 1921.4	上同
정백	유물사관의 「요령기」 사회주의학 설대요 其四	『개벽』 43, 1924.1	堺利彦, 『社會主義學說の大要』, 건설자동맹출판부, 1922
日塘	유물사관요령기 1~3	『조선일보』, 1924.1.9~11	上同

1920년대 전반기 번역자 윤자영과 신백우는 각각 공산주의 그룹에 소속된 인물이었다. 이들은 「요령기」를 번역 소개한 것은 맑스주의의 선전이라는 공산주의 그룹의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⁸⁾ 그렇다면 독자의 입장에서 이 글은 어떻게 이해되었을까? 신백우가 맑스의 학설은 “아직 우리 조선에서는 瞭然히 見解하는 者가 鮮少한 듯하여”라고 평가했듯이,⁹⁾ 「요령기」에 소개된 생산력, 생산관계, 상부구조, 생산양식,¹⁰⁾ 경제적 사회구성¹¹⁾ 등의 맑스 정치경제학의 주요 개념은 일반 독자에게는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물론 두 번역본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는데, 윤자영은 별다른 설명없이 맑스의 설을 소개한 반면 신백우는 맑스를 “추상적인 철학의 대신에 구체적 과학”을 성립시킨 인물로 평가하고, 맑스의 유물론적 변증법과 유물사관에 관한 소개를 한 후에 「요령기」를 소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번역본은 별다른 용어와 맥락에 관한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맑스의 정치경제학에 사전지식이 있는 ‘主義者’나 식자층을 주된 독자층으로 설정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정백의 번역은 보다 대중적인 ‘독자층’을 염두에 두고서 이루어졌다. 「요령기」의 한 부분에서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표> 「유물사관요령기」 2번째 공식에 관한 번역¹²⁾

윤자영	“사회의 물질적 생산력은 그 발달의 어느 단계에서 현재의 생활관계와 모순하게 되나니 환언하면 此생산관계의 법률적 표시에 불과한 그리하여 종래 此생산력을 자기의 내부에 활동하는 재산관계와 모순하게 되나니라. 즉 此關係가 생산력의 발달형식임으로부터 一變하여 그 장애물이 되나니 此에서 사회혁명의 시대가 시작하나니라. 경제적 기초에 변화함을 따라 그 거대한 상부구조의 전부도 역시 民[或-인용자]은 서서히 民[或-인용자]은 급격히 혁명되나니라”
신백우	“사회의 물질적 생산력은 그 발달의 어떤 단계에서 현재 생산관계와 모순되는 것이 있다. 다시 말하면 此생산관계의 법률적 표시에 불과한 생산력을 종래로 자기의 내부에 활동케하는 재산관계와 모순된 것이니 此關係가 곧 생산력의 발달형식으로 일변하여 그 장애물이 되는 것이다. 차에서 사회혁명의 시대가 시작하여 경제적 기초가 변화함과 같이 그 거대한 상부구조의 전부도 혹은 서서히 혹은 급격히 혁명되는 것이다.”
정백	“사회의 물질적 생산력(즉 富의 생산력)은 그 발전의 일정한 계단에 있어서,

8) 박종린, 앞의 글, 95쪽.

9) 신백우, 「유물사관개요」, 『공제』 7, 1921.4, 7쪽.

10) 두 번역본에서는 생산양식을 일본어 번역본에 따라 ‘생산방법’으로 표현했다.

11) 두 번역본에서는 ‘경제적 사회구성’을 일본어 번역본에 따라 ‘사회의 경제적 진화’로 번역했다.

12) 윤자영, 앞의 글, 71쪽; 신백우 앞의 글, 10쪽; 정백, 앞의 글, 50쪽; 일당, 앞의 글, 『조선일보』, 1924.1.10; 최인호의 역,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2, 박종철출판사, 1992, 478쪽.

	당시의 생산관계와 충돌하게 된다. 환언하면 이 생산관계의 법률적 표현에 불과한 바, 종래로 이 생산력을 자기의 내부에 활동시키던 바인 재산관계와 충돌하게 된다. 즉 이 관계가 생산력의 발전형식인 것으로부터 일변하여 그것의 장애물이 된다. 이에서 사회혁명의 시대가 도래한다. 경제적 기초가 변동함에 따라서 그의 거대한 상부구조의 전부도 또한 혹은 서서히 혹은 급격히 혁명이 된다.”
日塘	“사회의 물질적 생산력은 그 발달의 어떠한 단계에서 현재의 생산관계와 모순이 된다. 환언하면 此생산관계의 법률적 표시에 불과한 바의 그리고 종래의 此생산력을 자기의 내부에서 활동케한 바의 재산관계와 모순이 된다. 즉 차관계가 생산력의 형식이던 일로부터 일변하여 그의 장애물이 된다. 此에서 사회혁명의 시대가 始한다. 경제적 기초가 변화함과 共히 그 거대한 상부구조의 전부도 또한 혹은 서서히 혹은 급격히 혁명을 當한다.”
최인호 외	“사회의 물질적 생산들은 그 발전의 특정 단계에서, 지금까지 그것들이 그 내부에서 운동해 왔던 기존의 생산 과제들 혹은 이러한 생산관계들의 법률적 표현일 뿐인 소유관계들과의 모순에 빠진다. 이러한 관계들은 이러한 생산력들의 발전 형태들로부터 그것들의 족쇄로 변전한다. 그때에 사회혁명의 시기가 도래한다. 경제적 기초의 변화와 더불어 거대한 상부구조 전체가 서서히 혹은 급속히 변혁된다.”

일본어 번역자를 비롯해서 당대 ‘신지식층’은 서구의 사상을 일본어 번역본을 통해 받아들였다. 따라서 일본어의 重譯은 일본어를 해독 못하는 대중 독자를 염두에 둔 활동이었다. 위의 번역본은 사카이 글의 충실한 번역이지만, 텍스트와 번역 용어를 택하는 과정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1923~4년의 정백과 日塘의 번역본은 사카이의 『社會主義學說の概要』를 택했다. 이 책은 사카이가 1921년 강연을 정리해서 1922년 팜플렛으로 발행한 것으로 일본에서 맑스주의의 대중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¹³⁾ 이시기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도 맑스 사상의 ‘대중화’가 요구되었고, 사회주의 사상을 쉽고 평이하게 서술한 이 책은 정백에 의해 1923년 10월부터 5회에 걸쳐 『개벽』에 연재되었다. 번역을 하면서 정백은 원문에 없는 내용 예를 들면 “사회의 물질적 생산력(즉 富의 생산력)”의 부분에서 ‘부의 생산력’이란 추가 설명을 통해 독자층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이 연재물은 이후 1925년 5월에 개벽사출판부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점에 강조점을 두었다.

‘사회주의’라는 한갓 막연한 이름의 동경보다도 한 거름 더 나가 사회주의의 체계적 설명을 바라는 경향이 농후하나 尙今 것 그 이론에 대하여 하등의 체계적 소개가 있지 않음으로 그 요구에 응하여 우선 시급한대로 알기 쉽고 간단명료한 통속 책으로서 본서를 택한 것이다.¹⁴⁾

한말 이래 번역물의 선택과 소개는 개별 ‘지식인’의 작업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다양한 필자가 중복해서 번역물을 선택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했다. 한말 『자조론』이, 1920년대 초반 러셀의 저작이 그러했다. 사회주의 사상의 경우에도 동일

13) 박종린, 앞의 논문, 91~96쪽 참조.

14) 정백 역, 「서문 대신으로」, 『사회주의학설대요』, 개벽출판부, 1925; 박종린, 앞의 논문, 94쪽에서 재인용.

한 저작이 다양한 번역가에 의해 소개되었다. 1920년대 초반 「요령기」의 번역의 경우에도 다양한 번역가를 통해 잡지와 신문매체를 통해 소개되었다. 하지만 식민지시기 「요령기」 번역의 경우 개인적인 작업이 아닌 조직 활동에 참여했던 지식인이 실천 활동의 일환으로 맑스의 이론을 소개한 것이 이전의 번역가의 번역활동과 차이가 났다. 나아가 1924년 정백의 번역물처럼 독자층에게 보다 ‘알기 쉽고, 간단 명료’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체계화’와 ‘통속’의 관점에서 이론의 대중화를 위해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해서 1924년 1월에 재차 『조선일보』에 재차 「요령기」가 번역 소개된 것이 주목된다. 앞서 「요령기」를 소개한 잡지매체에 비해 신문은 보다 대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1923년 말과 1924년 초에 왜 「요령기」가 재차 번역되었고, 이러한 번역물이 실천운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3. 1924년 갑자년과 「유물사관요령기」의 번역

번역물이 외국어를 이해 못하거나 익숙하지 독자층을 염두에 둔 활동이라면, 이러한 번역물은 단순히 이론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중에게 확산이 되길 바라는 의도가 담겨있었다. 또한 이론의 확산은 조선 상황에 맞는 새로운 ‘이론’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욕구를 반영한 것이다. 당대 번역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신태약은 1923년까지를 ‘번역의 시대’라고 보았다.¹⁵⁾ 이는 당대 번역이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선진이론의 ‘번역’보다는 조선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24년의 시점에서 서구 서적의 일본어 번역본과 한글 중역본은 식민지 조선 사회의 知的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조선 문학은 다른 여러 나라의 문학의 영향을 받기 전에 우선 일본문학서류의 수입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 洋書라도 동경이라는 도시에서 번역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는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근래에 이르러서는 사상까지도 1년이나, 반년이면 곧 동경을 지나서 경성에 이르는 것도 사실이다. ... 우리도 어느 날에는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을 넘어 오는 것을 직접 음미할 날이 있으려니와, 종래 상태는 위에 말한 것과 다르지 않았다. ... 우리에게서는 그들보다 다른 민족이며 우리는 그들보다 다른 情趣를 가졌으면 깊은 고통도 남달리 가졌으니, 哀想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데 不顧하고 문학의 자기 환경과 생활과의 밀접한 관계를 不顧하고, 남의 먼저 간 사람의 사상을 따르기에 바빴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직껏 憧憬의 眞美를 맛보기 전, 남의 자연주의를 수입하였고, 남의 심각한 자연주의를 맛보기 전에 또 남의 이상주의에 따라나려는 모방적 생활을 하였던 것이다.¹⁶⁾ (밀줄 강조-인용자)

위의 글은 박영희가 1924년 『개벽』에 게재한 글의 일부분이다. 그는 서양의 사조를 직접 번역하지 못한 아쉬움을 피력하면서도, 도쿄를 경유한 일본어 번역본의 ‘신속함’과 ‘편리함’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문학 영역의 논의지만, 시간적 추이에 따라 변화된 사조의 흐름

15) 신태약, 「자본제도의 붕괴과정」, 『동아일보』, 1923.11.15.

16) 懷月(박영희), 「자연주의에서 신이상주의에-기우러지려는 조선문단의 최근 경향」, 『개벽』 44, 1924.2, 94~95쪽.

이 혼재되어 소개되거나, 수용되기 이전에 새로운 이론을 접해야 하는 당대 조선 사상계의 현상이라고 이해했다. 그렇다면 일본어 번역본을 재차 중역하는 작업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며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당대 조선의 지식인들도 ‘중역’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시도했다. 특히 일본 서적의 중역이란 일방향성을 벗어나고자 했다.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신태악은 고리끼의 『어머니』의 일본어 번역본을 중역하면서 “번역을 번역한 이글이 과연 그 원저자에게 죄됨이 얼마나 깊음을 모르겠습니다”라고 밝혔다.¹⁷⁾ 즉 그는 러시아 저작을 일본어 번역을 거쳐 한글로 중역하는 과정에 대한 고민을 피력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분적이나 서양 서적의 일본어 번역물 혹은 일본인이 재해석한 글에 대한 ‘거리두기’가 시도되었다. 한 예로 개벽 창간 4주년을 기념하면서 부록으로 朴英熙의 「중요술어사전」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문학관련 술어를 소개하면서 박영희는 “세상에는 日文으로도 문예사전이라는 것이 있으나 모두 不用廢字뿐이 많고 실제 없는 무용의 長物이 많음으로 일어서적, 서양서적, 기타 사전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유행어의 진수 뿐을 모으려 하였던 것이 이것”이라고 밝혔다.¹⁸⁾ 나아가 『개벽』 46호에 김기전(小春)의 「세계사회주의운동의 史的 記述」은 “右의 문제는 아메리카 대학사회주의협회의 간사인 레트라씨의 著인 <사회주의의 사상과 행동>이란 책과 일본에서 발행된 사회주의 팜플렛 같은 것을 참고하여 적은 것”이라고 밝혔다.¹⁹⁾ 당대 일본 번역물 일변도에서 벗어나 서구권의 논리를 참고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의 ‘重譯’의 문제는 사상의 소개·수용의 측면뿐만 아니라, 이를 실천 활동에 어떻게 적용하고자 했는가 여부에서 그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 1920년대 초반부터 일본어번역본을 중역 소개한 「요령기」는 1923년 물산장려운동을 둘러싼 찬반논쟁에서 중요한 논거로 활용되었다. 주된 논쟁점은, 앞서 인용한 「서문」의 두 번째 공식에서 보이듯이 생산력의 발전이 사회혁명의 연동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나경석 등 국내 상해파는 민족혁명을 수행한 다음 사회주의혁명으로 이행한다는 입장에서, 당대 조선 사회가 경제생활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이성태 등의 ‘신생활파’와 서울파의 전위당인 고려공산동맹, 북성회 등이 물산장려운동에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이들은 당대 조선이 자본주의적으로 미발달된 점에 동의하면서도, 사회주의혁명에 이행에 관해 전자와 차이가 있었다. 전자가 「요령기」를 근거로 사회주의혁명의 물질 토대가 되는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후자는 「공산당선언」을 근거로 계급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러시아혁명의 경험을 토대로 ‘프롤레타리아독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²⁰⁾ 즉 논쟁의 중심은 인류의 발전단계를 논의한 ‘유물사관’에 관한 구체적인 이해 여부와 사회주의 혁명과정에서 생산력과 계급투쟁 사이에 어디에 주안점을 둘 것인가에 놓여 있었다. 그렇다면 1924년 연초에 「요령기」를 잡지보다 대중적인 신문에 다시 소개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1924년이 干支로 새로운 시기의 출발을 의미하는 ‘甲子’에 해당했기 때문이었다.

새해를 맞이하는 각오는 일상적이지만, 식민지 조선의 민족운동가와 지식인이 갑자년(1924년)에 거는 기대는 남달랐다. 『개벽』의 한 필자는 “갑자년이 돌아왔다. 六甲의 원조되는 上元甲이 돌아왔다. … 六甲이라는 것은 옛 사람의 신비적 장난거리로 지어놓은 일종 무용의 물이라 하면 아무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아무리 무용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사람으로

17) 신태악, 「독자여러분께」, 『번역자의 모』, 1924, 평문관 ; 김병철, 앞의 책, 607쪽.

18) 박영희편, 「문학부」, 『개벽』 49, 1924.7, 부록 3쪽.

19) 『개벽』 46, 1924.4, 64쪽.

20) 사회주의자 사이의 물산장려운동 논쟁에 관해서는 박종린, 『일제하 사회주의 사상의 수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 사학과 박사논문, 2006, 68~84쪽 참조.

서 유용하도록 心機를 달리 굴리고 정신을 새로 가다듬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는 법”이라고 보았다.²¹⁾ 당시 신사상 수용에 적극적인 ‘신지식층’은 한말부터 지속적으로 ‘근대(문명)’에 상반되는 전통 혹은 ‘미신’ 비판에 적극적이었다. 위의 글의 필자를 포함해서 이들은 ‘갑자’에 대한 기대가 비과학적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해서 민족운동의 새로운 계기로 삼고자 했다. 1924년에 『동아일보』는 사명당 신도비가 “땀을 흘렸다”라고 기사 보도했다. 비과학적임을 염두에 두면서도 선죽교의 혈혼과 민영환의 血竹의 경우처럼 “이 비면에 흐르는 물을 ‘눈물’이라 한들 몇 푼의 잘못이라”라고 해서,²²⁾ 1924년에 생길 수 있는 무언가의 변화 가능성을 소개하고자 했다. 나아가 같은 해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평민들이 진정한 주인이 되어야 할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신진 사조를 소개하는 서적 및 번역물을 통해 “보통 평민의 상식 제도가 향상하여 시대사상을 섭취하기에 조금도 구애가 없게 되면, 우리의 앞일은 □□□ 것이 없이 될 것”이라는²³⁾ 낙관적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갑자’에 관한 기대감의 표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당대 지식인들은 1924년을 맞이해서 침체된 민족주의 계열의 민족운동이 새로운 부활하며, 새로 성장하는 사회주의 운동이 보다 강력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했다. 1920년대 전반기의 사상계를 보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분화 양상이 분명히 나타났다. 1923년에만 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민족운동의 주도권을 놓고 물산장려운동, 민립대학설립운동 등에 관해 여러 논전을 벌렸다. 어느 필자의 표현처럼 1923년은 민족해방운동 진영 내부에서는 “사회주의 대 민족주의의 투쟁이니 이것은 계급투쟁으로 보느니 보다 사상 대 사상의 투쟁, 주의 대 주의의 충돌”이 전개되었다.²⁴⁾ 필명 日塘은 「요령기」의 번역 취지를 “왔습니다. … 비밀로 동경하고 기□하던 그 갑자년이 왔습니다. … (번역자는 六甲의 신봉자가 아니라 전제한 후 - 인용자) 대중을 위하는 의미로서의 동경이요 전망이라 하면 스스로 찬성자의 하나” 라고 번역 취지를 밝혔다.²⁵⁾ 아울러 “그 운동을 위하여 만일의 참고에 드리고자 천하 대중의 열광적 환영리에서 날뛰고 있다는 「유물사관요령기 6절」을 擧利彦씨의 演義한 그대로” 번역한다고 밝혔는데, 여기서 ‘그 운동’은 갑자년을 맞는 대중의 변혁 욕구를 의미했다.

1924년 갑자년에는 사회주의 사상의 적극적 소개·수용과 함께 조직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1924년 2월 고려공청중양총국의 합법적 표면단체인 신흥청년동맹, 4월 북풍회의 지하단체인 까엔당과 조선청년총동맹, 5월에는 오르그부로, 8월 조선노동당, 11월 화요회·북풍회, 12월 사회주의자동맹(서울파) 등이 조직 결성되었다. 전국적 규모의 대중 단체의 경우에도 4월에 전조선청년총동맹과 전조선노동총동맹이 결성되었다. 이러한 1924년의 비합법 기간 조직 및 합법적 사상·대중 단체의 결성은 1925년에 조직된 조선공산당을 예비한 해였다. 실제로 당시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3·1운동을 기점으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2대 조류가 존재하며, 사회주의는 “새로운 무엇을 동경하던 대중 특히 자본계급의 착취를 당하고 기아, 곤경에 呼泣하는 무산대중이 출현하여 이 주의를 신봉하게 되었다”라고 해서,²⁶⁾ 사회주의 운동의 대중적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동의했다. 요컨대 1923년 물산장려운동 논쟁이 ‘주의자’ 사이에서 「요령기」를 민족운동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중심이었다면,

21) 「癸亥와 甲子」, 『개벽』 43, 1924.1, 1쪽.

22) 『동아일보』, 1924.4.12.

23) 사설, 「평민과 시대」, 『동아일보』, 1924.9.27.

24) 「癸亥와 甲子」, 『개벽』 43, 1924.1, 5쪽.

25) 일당 譯, 「유물사관요령기」 (1), 『조선일보』, 1924.1.9.

26) (사설) 「현하 사상계의 2대 조류」, 『조선일보』, 1924.5.17.

1924년 「요령기」의 번역자는 갑자년을 맞이하여 사회주의의 기본 이론이 대중 독자층에게 확산되길 기대했다.

한편 1924년 초 조선인 언론매체에서 보였던 ‘갑자’의 기대는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기대가 실현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처하는 방안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한편으로 높은 기대에 대비된 현실은 실망 혹은 좌절을 주기도 했으며, 다른 한편으로 미래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제시하기도 한다. 해가 바뀌는 연말과 연초에 그러한 기대감이 언론매체에 반영된다. 1925년을 앞둔 1924년 말의 조선인 언론매체는 갑자년에 관한 아쉬움을 다양하게 피력했다. 그렇지만 민족운동의 고양기의 전반적인 경향은 갑자에 대한 회억보다는 새로 오는 ‘乙丑’에 관한 기대감이 높았다. 『개벽』의 논지 역시 유사했다. 1924년 12월 『개벽』 54호의 권두언도 “행운으로 생각했던 갑자년은 불행하게도 이렇게 지냈다”라고 변화 없음을 지적하면서도, 갑자년 속에서 “여기 대서특필하여 상호 기억이 尙新할 것은 갑자년에 대한 조선의 사상 발전이며, 사회운동이라. 다시 말하면 청년운동과 노농운동이다. 전조선청년총동맹이 갑자년 4월이요, 전조선노농총동맹이 또한 갑자년 4월이다. 이것 뿐은 조선의 신기록이다”라고 평가했다.²⁷⁾ 새롭게 소개되는 번역물은 다시금 이러한 기대감 채울 수 있는 내적 동력을 얻는 방안으로 계속 진행되었다. 아래에서는 번역물의 소개를 통한 사상의 수용과 관련된 주제로, 「요령기」 등의 소개와 맞물린 유물사관에 관한 이해를 당대 민족운동 계열의 입장과 연결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4. 민족운동 분화와 ‘유물사관’에 관한 이해

근대 동아시아 사회의 서구 사상 번역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시간적 ‘압축성’에 있다. 서구 사조의 소개 및 수용이 단시간에 이루어졌으며, 서구 사상 변화·발전의 추이와 상관없이 소개과정에서 시간적 변화과정을 역행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 동일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떤 서양 사조가 긍정과 부정이 함께 논의되고, 서로 대립되는 사조가 함께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식민지 조선 사회의 경우도 동일했다. 소비에트 러시아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논조가 동일한 언론매체에 등장하기도 했으며, 앵글로 색슨적 가치관과 공산주의의 가치관이 동일하게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가치관·입장으로 소개되었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는 1924년 11월 7일 사설을 통해 소비에트 러시아는 “세계의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新歷史를 완성하라는 그 동력을 추진케 하고 그 방면을 지도하고 있게 되었다”라고 평가했으며,²⁸⁾ 10일 후의 사설에서는 영국인의 문명은 “일반의 지식 ... 화려한 이론보다 인생 생활에 직접 관계가 있는 모든 이용후생학을 가르쳐 ... 공리주의적 경향이 많을 것”이라고 소개했다.²⁹⁾ 서양 사상 소개의 시간적 압축성은 번역물이 소개와 이에 관한 수용 사이의 간극이 생겨났다. 사회주의 사상의 기본적인 요소인 맑스주의와 ‘유물사관’에 관한 번역·소개·수용의 과정 역시 압축성과 혼재성이 반영되었다.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민족운동은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뉘었고, 후자는 맑스-레닌주의에 입각해서 실천 활동을 전개했다. 사회주의자인 정태신은 유물사관은 “유물론자가 인류사회의 역사연구에 응용”한 것으로 맑스 학설의 근거가 된다고 평가했다.³⁰⁾ 김

27) 박달성, 「갑자년의 조선의 특실 여하」, 『개벽』 54, 1924.12, 2~3쪽.

28) (사설) 「7주년을 마지하는 노농러시아」, 『조선일보』, 1924.11.7.

29) (사설) 「상식문명 - 영국인의 장점」, 『조선일보』, 1924.11.17.

기진의 경우에도 “유물사관이 다소의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유물사관의 진리를 부인하지는 못한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함으로써,³¹⁾ 유물사관을 사회주의 실천 활동의 ‘진리’로 간주했다. 「요령기」를 소개한 『조선일보』는 물론 1924년 시점에서 『동아일보』 역시 사회주의 실천 활동에 관해 부정적일 수 없었다. 『동아일보』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새삼스러이 이 문제(세계혁명-인용자)를 의론하고 싶지 아니하다. 구주대전 이후 특히 러시아혁명이래 전세계는 이미 혁명선상에 올라서 …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물론하고 다 같이 간단없이 실지상 진행하는 까닭이다.”³²⁾ 라고 해서 혁명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소비에트 러시아에 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과 병행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근년에 이르러 歐亞북방에서 사회공산주의 국가가 발생하였으니 이는 경제적 평등을 실행하여 정치적 평등의 근본을 삼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산소유권을 부인하고 모든 사람으로 평등한 기회를 누리게 하였다. 이 제도는 지금 시험 중이라 할 것이나 결과 好否에 대하여는 世人의 소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나 그 주의인즉 佛米等國의 공화주의보담 일보 더 나가서 모든 평민을 참으로 평등케 하려는 것이다.³³⁾

맑스-레닌주의는 자신들의 논지를 강화하는 데 활용되기도 했다. 1920년대 일제의 ‘문화정치’는 식민지 조선인의 言路를 일정하게 열렸지만, 식민지 상황 속에서 ‘정치’를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맑스의 논리는 식민지 조선사회에서 ‘정치운동’³⁴⁾의 필요성을 언급하는데 근거로 활용되기도 했다.

맑스는 ‘모든 계급의 투쟁은 總히 정치적 투쟁’이라고 하였다. 원래 계급투쟁은 생활투쟁이다. 어떤 계급이 自階級의 생활을 환락하기 위하여 권력으로써 다른 계급의 생활을 압박 또는 蹂躪된 바 생활에서 原생활을 계급적으로 회복하려고 압박 계급의 권력에 대하여 반항하는 운동이 이곳 계급투쟁이다. 그런즉 계급투쟁은 권력투쟁이요 이 권력투쟁은 물론 정치투쟁이 생활투쟁이 되는 것이니 생명이 있는 인간으로써 그의 생활을 위하여 생활투쟁 즉 정치투쟁을 행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살려는 본능적 충동이다.³⁵⁾

맑스와 레닌주의에 관한 긍정적 평가와 ‘활용’은 1920년대 중후반에도 민족주의계열의 언론매체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1920년대 중후반 좌우 연합을 모색했던 시기 동우회

30) 又影生(정태신), 「막스와 유물사관의 一瞥」, 『개벽』 3, 1920.8, 99쪽.

31) 김기진, 「Promeneade Sentimental」, 『개벽』 37, 1923.7, 88쪽.

32) 사실, 「세계혁명운동」, 『동아일보』, 1924.5.31.

33) 사실, 「평민과 시대」, 『동아일보』, 1924.9.27. 러시아 10월 혁명 6년이 된 것을 기념하는 『동아일보』의 사설에서는 “전세계의 列國이 공인하는 바 세계 중에 罔연존립한 국가가 되었으며 따라 저 자본주의의 미국과 제국주의의 일본도 이 신국가의 존립이며 그의 발전에 대하여 여하히 위험시 威脅感할지라도 이 대세의 위력에 從從치 아니치 못”한다고 해서 소비에트 러시아의 존재를 인정했다(사설, 「신국가의 기념」, 『동아일보』, 1924.10.7).

34) 당대 ‘정치운동’의 용례는 ‘민족적 정치운동’과 ‘계급적 정치운동’으로 구별되어 사용되었다(사설, 「조선의 정치운동」, 『동아일보』, 1924.10.30). 이 논설에서는 러시아에서 歐化 운동과 나로드니키 운동 이후 사상운동이 실재화 한 것을 ‘정치운동’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 ‘정치운동’은 ‘변혁/해방/독립’운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

35) 사실, 「정치운동의 변명」, 『동아일보』, 1924.10.25.

기관지인 『동광』은 사회주의 관해 “사회주의자의 이상을 용인한다 하더라도 민족주의가 설 땅은 남는다”라고 해서,³⁶⁾ 민족운동의 영역에서 사회주의 계열의 역할을 인정했다.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유물사관에 관해서도 이와 유사하게 일면 긍정과 일면 비판의 입장에서 이해했다고 판단된다. 그 한 예로 『개벽』의 한 필자는 “밖에 있는 사회제도의 조직을 고치면 따라서 사람의 심리도 변화할 것이라 함은 유물사관에 나타난 말”이며 사물의 변화에 의해 심리도 변화한다는 것이 一理가 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이렇듯 유물사관을 인정하면서도 민족 구성원 내부의 대립 구도 보다는 ‘무산계급적 조선 민족’이라는 범주 설정을 통해 일본과 조선 민족의 대립구도를 설정하고자 했다. 하지만 신간회의 해소 이후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사이에 서로에 관한 대립구도를 설정함으로써 ‘유물사관’에 관한 평가에서도 양 계열 사이에 커다란 인식 차이를 보였다.

1931년 5월 좌우연합전선에 입각한 신간회의 해소는 새로운 대안 모색이란 긍정적 측면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비판적 전망을 함께 드러내기도 했다. 신간회 해소를 주도했던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상대방인 민족주의 계열의 역량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다시 말해 노동자·농민을 중심으로 한 대중 조직을 토대로 해서 새롭게 전위 조직체를 건설하려는 사회주의 계열의 입장에서는 합법 단체인 신간회가 별다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다고 평가되었다. 아울러 노선의 차이에 따른 대립은 상대방에 관한 부정적인 규정에서 출발하는데, 사회주의 계열은 타협과 비타협의 구별없이 민족주의 계열을 ‘사회민주주의’, ‘민족개량주의’ 등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이들은 민족주의 계열이 대중적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며 심지어 ‘지배계급’의 지지자였다고 보았다. 이러한 공세 속에서 민족주의 우파 계열의 이광수는 사회주의계열이 유물사관에 입각해서 조선의 특수성을 부정하며, 소비에트 러시아의 입장을 추수한다고 비판했다. 1932년 2월 이광수는 “근래에 민족이라는 말을 린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얼 맑시스트의 무리다. 그들은 大明을 조국이라고 부르던 자와 같은 노예사상을 가진 무리다 … 민족 생활은 어느 종교보다도 크고 길고 어느 주의보다 크고 긴 것이다. … 민족은 영원의 실재다. 이러한 때에 있어서 민족이란 말을 린하고 辱하는 자는 마땅히 민족의 죄인이라고 극언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해서,³⁷⁾ 마르크스주의가 조국 없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唯心史觀을 주장하면 맑스의 유물사관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물질적 환경이 인생 생활(사상과 행동)을 제약하는 것을 부인함이 아니나 인생 생활의 방향과 질을 규정하는 데 주동력이 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의 힘이 아닐 수 없다. 맑스의 유물사관은 환경의 힘에 사람의 注意를 향하게 하기에 有功하였지만 사람들은 환경의 힘은 유일, 전체로 해석하게 된 때에 그것은 죄가 되었다. 더구나 본래 숙명론적 경향을 多分으로 가진 조선인에게는 그 惡傾向을 조장한 감조차 없지 아니하였다.³⁸⁾

1930년대 들어와서 민족주의 계열 내부의 현실적 민족운동 조직체의 부재는 상대적으로 사회주의 진영과의 보다 첨예한 이념상의 대립을 보이게 되었다. 역사학의 영역에서는 최남선의 ‘유심사학’에 관해 白南雲은 유물사관의 입장에서 역사 발전의 계급성이나 조선 문화의 내면적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국수적 특수문화사’라고 규정했다.³⁹⁾ 대중적 지명도가

36)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동광』 1, 1926.5, 20쪽. 이글의 필자는 이광수이다.

37) 이광수, 「조선민족운동의 3기초사업」, 『동광』 30, 1932.2, 13쪽.

38) 이광수, 「유심사관」, 『동광』 36, 1932.8, 15~16쪽.

높았던 이광수의 경우, 사회주의 계열로부터 보다 정치적 입장에서 ‘비판’이 진행되었다.⁴⁰⁾ 한 필자는 그의 민족을 위한다는 사업이 민족 전체에 얼마나 이익이 있을 것인가 반문하고, "종교가들은 사람이 급하여지면 무조건하고 ‘하나님이여!’하고 부른다고 하며 자기의 종교를 선전한다. 이에 이광수씨는 ‘조선이여!’, ‘단군하나님이여!’ 하면서 새 노예철학을 수립하려고 한다."라고 비판했다⁴¹⁾ 당대 사회문제에 관한 관심을 과거 조선과 단군에 찾는 행위를 계급적인 입장에서 ‘노예철학’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아울러 이광수가 강조했던 유심사관은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다.

이광수에게서 옛날의 뜨겁던 정열은 다시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리고 그의 글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의 뜨겁던 熱은 다시 그에게 영원히 장아 보지 못하고 그저 말 것이다. 춘원은 벌써 늙었는가? 만일 전날 熱이 남아있거든 시대 뒤떨어진 「유심사관」에 헛 윙크를 허비치 말고 옛날과 같이 젊은이들의 가슴을 움직이게 하는 글이 다시 나오게 하여 주지는 못하겠는가. 이미 老成의 대가로 자처하여 일편의 자서전을 抄하는 것으로 일생을 마치려하는가?⁴²⁾

‘유심사관’과 ‘유물사관’의 선택 여부는 정치적 입장을 구분하는 한 기준이 되었다. 당시 사회주의 계열은 세계공황으로 자본주의체제의 위기를 초래했고, 이는 사회주의의 도래를 예정한다는 정세 인식 아래, 대중조직을 통한 전위 조직체 결성이란 계급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이들은 민족주의 계열이 대중적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며 심지어 ‘지배계급’의 지지자였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회주의 계열의 공세에 대응해서 민족주의 우파인 이광수는 조선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반민족적 행위로 대립의 각을 세웠다. 사회주의 계열도 또한 이광수의 유물사관에 관한 부정확한 이해에 관해 재비판했다. 이광수가 맑스의 유물사관이 숙명론을 조장한다고 주장한 것에 관해 “18세기 이전의 기계적 유물론자가 아니고 정당한 변증법적 유물론자인 맑스와 그의 정통적 지위에서 그것을 일층 발전시킨 레닌의 귀중한 유물론적 교훈 가운데서 우리들은 일찍이 환경의 힘이 유일 전체다 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다.”라고 비판했다.⁴³⁾ 이렇듯 식민지 조선사회에서 ‘유물사관’의 소개는 하나의 학설을 ‘선택’하는 수용 과정을 넘어서 정치적 ‘선택’을 요구하고 다른 계열에 대한 비판의 논거로 활용되는 실천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5. 맺음말

한말 이래 1920년대 초까지 출전과 근거를 제시하는 ‘학문적’ 글쓰기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전까지 한말 일제 초 서구사상의 소개·수용은 1) 출전을 밝히지 않거나 2) 출전의 초역 3) 경계역 4) 번안 4) 요약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선의 출판시장이 ‘완역’을 수용할

39) 방기중,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1992, 142쪽 참조.

40) 이광수에 관해 한 필자는 “이광수씨의 본의와 기도는 혹 좋을지도 모르나 오인의 관찰로써 비평한다면 확실히 조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사실이다.”라고 평가했다(丁來東, 「이광수씨의 꿈-그의 공상을 타파함」, 『제일선』 2-9, 1932.10, 34쪽).

41) 丁來東, 「이광수씨의 꿈-그의 공상을 타파함」, 『제일선』 2-9, 1932.10, 36쪽.

42) 「망명객들의 귀국 이면 폭로」, 『제일선』 2-8, 1932.9, 78쪽.

43) 白唯, 「이광수씨의 유심사관 비판」, 『제일선』 2-8, 1932.9, 301쪽.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그렇다면 ‘중역된 근대’의 모습은 어떠했으며, 우리의 입장에서 중역된 번역물의 수용과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식민지배자인 일본과 피식민지 조선 사이에 ‘번역물’은 어떠한 지식과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중역된 근대’의 모습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번역자의 역할과 식민지란 시대적 상황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사상사 연구와 관련해서 번역을 통한 서양 사상의 소개와 수용은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1920년대에도 다양한 서양 서적의 일본어 중역본과 일본어 서적의 번역본이 조선인 언론매체에 선택되어 소개되었다. 시대적 상황과 관련해서 그해 레닌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이 번역되어 소개되거나, 『개벽』 편집진이 세계 종교에 관련된 특집을 구성하는 데 활용되었다. 그 과정에서 이론 소개와 관련해서 유물사관과 「유물사관요령기」 등의 소개가 주목된다. 특히 1920년대 초반 소개된 「요령기」가 1924년에 재차 소개된 것은 ‘갑자년’이란 새로운 변화에 관한 기대감이 투영되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사회의 변화를 예시한 이 글은 식민지 조선 사회에도 ‘약진’하는 사회주의 운동과 연동되어 ‘변혁’의 전망을 제시했다.

본고에서는 번역과 관련해서 식민지 사상사의 관심 영역은 ‘중역된 근대’에서 찾고자 했다. 번역을 통한 근대의 형성과정에서 주목한 것은 우선 ‘시간적 압축성’이었다. 서양에서 수십 년 동안 논의된 것이 일본을 거쳐 식민지 조선에 단시일에 소개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근대 사상의 신속한 수용에 기여했지만, 서로 대립적인 사조가 한꺼번에 소개되고, 소개 과정에서 사상 전개과정의 추이와 관련없이 전해지거나, 한 언론매체의 같은 지면에서도 서로 상이한 주장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러한 소개와 수용의 ‘혼재성’ 역시 ‘중역된 근대’의 특징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특징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번역자가 번역물을 ‘선택’해서 소개할 때 시대적 상황과 독자층의 욕구를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번역물이 어떻게 수용되었는가에 관해서는 ‘독자층’의 반응 내지는 실제 민족운동 과정에서의 ‘적용’ 등의 사례를 병행해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